

# 채팅앱 은밀한 성매매... 뒷에 걸린 청소년

### 성매매특별법 12년... 오피스텔·마사지숍 등 음지로 파고들어 70%가 채팅앱 이용·성매매여성 21% 미성년... 대책 시급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2년째인 23일로 만 12년을 맞았지만 법 제정 취지대로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행위가 근절되지는커녕 다양화되고 더 은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이른바 ‘OO촌’으로 불리는 집결지에서의 성매매는 위축된 반면 도심 주택가 오피스텔, 마사지숍, 다방 등 생활권 주변에서의 성매매 행위는 활개치는 모습이다. 특히 성매매수남들의 빛나간 욕구와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스마트폰 채팅앱이 맞물리면서 청소년들이 성매매 유혹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587건의 성매매 현장을 적발하고 2057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조치했다.

연도별 단속 건수와 입건자 수는 지난 2014년 170건에 589명, 2015년 173건에 592명, 2016년(8월말) 244건 876명이다.

성매매 적발 장소는 주택가 오피스텔이나 원룸, 도심 변화가 마사지숍, 다방, 모텔 등으로 생활권 주변으로 파고들며 다양화·은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송정리·대인동·양동·학동을 중심으로 300여개가 성업했던 성매매 집결지의 경우 법 시행후 사라지는 듯했지만 현재 70~80개

업소가 영업할 정도로 세를 회복해 성매매 장소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게 여성보호단체 설명이다.

성매매수남들과 여성들을 이어주는 매개체는 포주(알선업자)의 전단 배포, 무차별 문자 살포 등 영업 활동과 인터넷 사이트, 스마트폰 채팅앱 등이다.

특히 스마트폰 채팅앱의 경우 가출 청소년 등 미성년자들과 비뚤어진 성의식을 가진 성매매수남들을 연결하는 창구로 이용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비화하고 있다. 경찰이 올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광주지방경찰청이 올해 단속한 스마트폰 채팅앱 이용 성매매가 건수로는 총 244건중 94건(38.5%), 검거 인원은 876명 중 622명(71.0%)을 차지했다.

특히 채팅앱을 이용한 성매매 여성 103명 중 22명(21.3%)이 여중생을 비롯한 미

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채팅앱 가입 연령 제한 및 본인 인증 의무화, 성매매 암시 글 게시 금지 등을 거론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매매 여성 상담소 ‘안나네’ 김희영 소장은 “경찰 단속을 통해 드러난 채팅앱을 매개로 한 청소년 성매매 사례는 빙산의 일각으로 이는 빼놓아진 성의식과 당국의 허술한 규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단속과 규제는 필요하지만 성매매 행위 자체는 사회 전체가 풀어가야 할 숙제로 개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위주로 한 대책은 해답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성매매 여성들의 경우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해야 하고 무엇보다 성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알선 수재 광주시 전 자문관 수사 확대 또 다른 혐의 포착... 검찰, 은행·업체 압수수색

건설사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의 돈을 받고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전 광주시 정책자문관 대한 검찰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22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광주시 전 정책자문관 김모(63)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업체에서도 자문료를 받아 챙긴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던 중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 또 다른 범죄 혐의를 포착, 금융계좌의 흐름 등을 파악하기 위해 모 은행과 다수의 업체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말 전남지역 중소건설사

인 S건설의 자문 역할을 하며 자문료 명목으로 1억8000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S건설 측이 제시한 용역결과물을 명의로 빌려준 뒤 용역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씨가 광주시에서 윤 시장 등의 ‘비선 실세’로 통할 만큼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행사해 온 점에 주목하고 있다. 관급공사로 회사를 키운 S건설이 김씨를 통해 광주시 관급공사 수주활동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김씨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김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소록도 살인사건’ 60대 사형 구형

고흥 소록도 주민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오모씨(68)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2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씨의 첫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은 오씨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돼 구형까지 이뤄졌다.

검찰은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씨(여·60)와 천모씨(64)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

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오씨가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와 사실혼 관계인 오씨는 지난 달 8일 밤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2시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린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20대 성매매 여성 ‘악몽의 2년’

### 다방 취업→성매매업소 팔려 전국 업소 전전...빚만 늘자 탈출 경찰, 알선·상해 혐의 조폭 영장

성매매 여성 김모(28)씨는 스물네살이던 지난 2011년 광주의 한 다방에 취직했다. 몸을 혹사하지 않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커피만 배달하면 공장에서 버는 돈보다 월급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서다.

업주 이모(34)씨는 처음엔 살갑게 굴며 갖은 편의를 제공했지만, 1년이 흐른 지난 2012년 3월께 본색을 드러냈다.

갑자기 몸이 아파 다방을 나와 집으로 쉬러 들어가거나 운동화를 신고 출근하는 등 조금이라도 본인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이면 주먹과 발, 심지어 쇠파이프로 때렸다.

업주 이씨는 김씨가 다방 생활 4년째가 되던 지난 2014년 3월에는 “다방보다는 서울 OO촌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꼬여 반강제로 팔아넘겼다. 소개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고서 김씨를 성매매 업소에 넘겨버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자신이 폭력조직 행동대원이란 점을 내세워 갖은 협박을 동원했다. 이후 3개월 단위로 업소를 옮겨다니며 성매매에 나섰고 업소를 옮길 때마다 소개비 400만원은 애초 김씨를 성매매업소에 넘긴 다방 업주 이씨에게로 건너갔다.

전국을 돌며 2년에 걸쳐 7곳의 성매매업소를 전전했지만, 김씨에게 빚만 늘 뿐 모이는 돈은 없었다. 20여만원의 화대를 받으면 25%는 이씨가 떼가고 나머지 25%는 성매매업소 업주가 떼가고 겨우 50%만 수중에 남았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또 속소와 식사를 제공한다며 돈을 떼가고 몸이 아파 쉬면 선다고 벌금을 물리는 등 갖은 명목을 붙여 가며 돈을 가로채갔다. 김씨는 계속된 성매매에도 업주에게 빌린 1000만원의 선불금이 줄지 않자 최근 경남 마산의 한 성매매업소를 탈출, 여성단체와 함께 업주 이씨의 만행을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서부경찰은 지난 21일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다방에서 광주지역 폭력조직 S과 행동대원 이씨를 붙잡아 성매매 알선과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국과수, 전일빌딩 총탄흔적 조사 2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들이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외벽의 총탄흔적을 조사하고 있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리모델링에 5·18 당시의 흔적들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5·18단체와 함께 국과수에 조사를 의뢰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인사 기록 조작 혐의 박철환 해남군수 징역 3년 구형

공무원들의 인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22일 광주지법 형사 9단독 노호성 판사 심리로 열린 박 군수의 네 번째 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100만원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13~2014년 직원 50여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조작, 부당한 인사를 한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근무평정이 조작된 공무원 수를 19명으로 낮춰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날 박 군수는 근무평정이 조작된 것으로 특정된 직원 중 15명에 대해 “군수로서 직원들의 업무능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신중한 업무 처리가 안 돼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박 군수는 취임 후 특채로 채용한 A비서실장으로부터 펀드 투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



지지대 아래로 ‘아찔’ 22일 오후 나주시 빗가람동 중흥S클래스 아파트 건너편에 신축중인 상가가 관리부실로 지지대가 도로로 쏟아져 내려 행인과 차량을 덮칠뻔한 아찔한 순간이 연출됐다. <독자 배대성씨 제공>

## 스무살 연하 여친 변심에 이별여행 피어 감금·위협

○...60대 남성이 7년 넘게 사귀던 스무살 여친의 변심에 분노, ‘이별여행’을 방자해 피어난 뒤 감금하고 위협했다가 시끄러웠다.

○...해남경찰에 따르면 A(67)씨는 지난 9일 새벽 0시 10분께 해남군 북일면 한 농로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 교체

하던 여성 B(47)씨를 옷을 벗겨 가두고 손목을 묶은 뒤 “죽이겠다”며 토치에 불을 붙여 위협했다는 것.

○... A씨는 7년 넘게 교제한 B씨가 최근 결별을 선언하자 “이별여행을 가자”며 피어 서울에서 해남까지 내려온 뒤 불변했다가 빈틈을 이용해 달아난 B씨 신고로 경찰에 검거. /해남=박희석기자 dia@

# 지리산 온천지구 내, 호텔급 모텔, 손실보고 매매!

-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관산리 732-1번지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 대지 573평, 건물 719평, 지하 1층 지상 4층, 객실 58개
- 1층 - 식당 / 세미나실 / 객실, 2~4층 - 객실
- 다용도 개발 가능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감정가 - 14억 (2016. 7월 감정)
- 1순위(은행) - 6억 3천만원
- 2순위(개인) - 1억
- 매매 - 대출금만 안고, 법인체 인수 가능
-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준비중 (4억 예상)
- 리모델링 후 연 4억 순수의 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